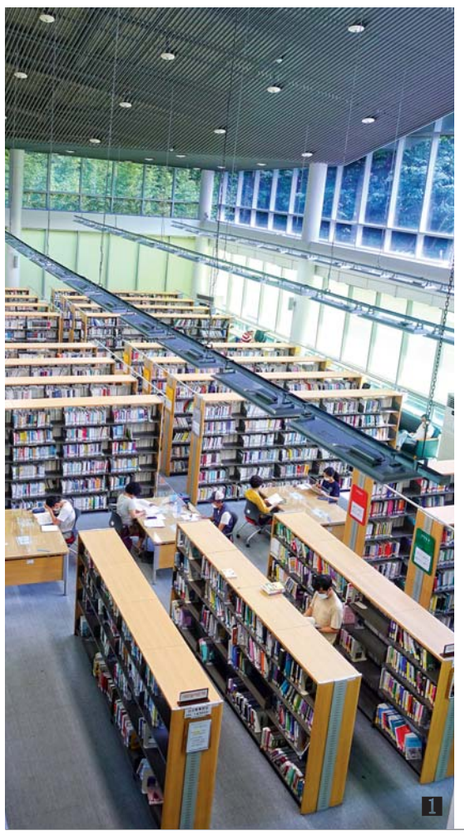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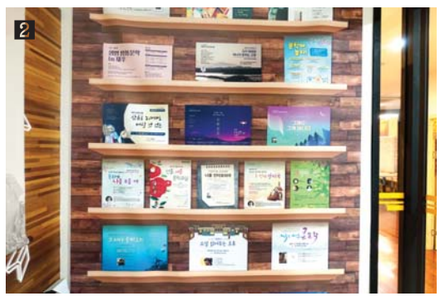

1


2

3

4

1 제주도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 일반 자료실.
2 제주문학의 집 벽면에 그동안 문학의 집에서 진행해 온 행사를 담은 홍보물이 전시돼 있다.
3 제주문학의 집에서 제주 작가 초청 북토크가 열리고 있다.
4 제주착한여행에서 제작한 2020년판 제주책방올레 지도.
5 지난 1월 열린 제주도립 제주문학관 기공식.

문학과 독자를 잇는 도서관·책방 이어 마침내 문학관

문학이 있는 풍경
문학 도시를 가다

(3) 문학을 담는 공간들

제주시 건입동 제주문학의 집
10년 전 문학관 거점센터 조성

2005년 건립위 구성 후 제자리
문학관 내년 개관 목표 공사 중
지역출판사·동네책방 지원 조례
2년 전 제정됐으나 작동은 아직

지난달 27일 저녁 제주시 건입동 제주문학의 집.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북카페 대신 강의실에 띄어앉은 이들은 시조가 그려내는 삶의 풍경과 만나는 중이었다. 제주문학의 집이 '도민문학학교' 프로그램으로 신작 시조집을 낸 제주 김영기 시인을 초청한 북토크 행사였다.

제주문학의 집은 10년 전인 2010년 3월 문을 열었다. 제주예총과 제주민예총이 지금의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로 이사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들어섰다. 제주도 지원 아래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문학단체인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 사무실, 북카페 등을 배치했다.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 입주에서 짐작하듯, 제주문학의 집은 문학관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곳이다. 2014년 국내 유명 출판사에서 문학답사 도서 부록으로 만든 '전국 문학관 지도'엔 제주문학의 집이 빠져있지만 현재 이곳은 전국 약 90곳이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으로 문학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 발전을 이끌며 문학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문학거점 공간, 제주문학관 건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거점센터, 문학인과 문학을 사랑하는 도민들이 문학적 교감을 나누는 공간이면서 문학인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청소년과 도민들에게는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내세웠다.

그동안 문학의 집은 독자와의 만남, 창작 실기 강의 등을 통해 작가 지망생들의 열망에 다가섰다. 작년에만 1400명 넘는 인원이 문학 아카데미 등 문학의 집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문학과 관련한 장소성이 취약한 편이나 사라봉과 가깝고 눈을 들면 제주항이 내다보이는 곳으로 문학이라는 너른 바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학의 집 북카페 입구 벽면 양쪽을 꽉 채우고 있는 프로그램 홍보물이 그간의 여정을 말해준다. 문학의 집 프로그램은 앞으로 공립 제주문학관에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도 인구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전국 상위를 달리는 한편에 자꾸만 뒤편으로 밀렸던 문학관은 내년 모습을 드러낸다. 2005년 9월 5일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약 15년 만에 97억원 규모의 공사가 구체화됐다. 눈발 날리던 지난 1월 제주시 연북로 도남동 부지에서 첫삽을 떴고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짓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문학과 관련된 자료 수집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도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 거주하는 작가의 작품, 제주를 소재로 한 작품, 제주 역사와 문화 등 제주의 정체성을 다룬 문학 등 고대로부터 1980년대까지 발간된 전시, 연구, 교육 등 모든 장르의 제주문학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문학을 담는 그릇은 문학관만이 아니다. 제주 문화기반시설 중에 강세를 띠는 곳이 공공도서관이다. 제주지역 공공도서관은 위탁운영을 포함 22곳에 이른다. 2019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면 인구 백만명당 공공도서관 수는 제주가 33.42곳으로 강원(37.49)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15개 공공도서관 기준 전체 장서 170만여 권(2020년 8월 31일) 중에서 문학 도서가 65만4000여 권으로 절반 가량이 된다.

이들 도서관은 제주의 독서지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격년으로 발표하는 지난 3월 '2019 국민독서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제주는 연간 독서율(63.5%), 연간 독서량(9.4권), 평일 독서시간(36.6분), 공공도서관 이용률(25.8%),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5.1%) 등 5개 항목 모두 평균 이상인 광역지자체에 올랐다. 그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 인천을 포함 3곳 뿐이었다.

제주도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의 지난 한 해 이용자수는 32만명이 넘는다. 그중 14만6300여 명이 약 46만권의 도서를 대출했다. 한라도서관은 '수험생 공부방'으로 불리는 열람실이 없는 곳인데, 책과 문학이 있는 공간 그대로의 도서관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지난 3~6월 코로나19 여파에 예약제를 통한 '북 드라이브 스루' 시행 때도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505명이 10만5800여 권을 대출한 것에는 못미치지만 1만830명이 3만4700여 권을 빌려봤다.

제주엔 문학과 독자를 이어주는 책방 바람도 불고 있다. 사회적기업인 (주)제주착한여행에서 2년째 '제주책방올레'를 제작해 무료 배포하고 있는 건 책방 이용 문화를 확산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여행상품으로 내놓을 만큼 그 수가 많다는 의미다. 어느 책방 운영자는 2~3년 사이 제주 바닷가 마을에 60여 개 작은 책방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책방의 연락처와 특징, 위치 정보 등을 담은 '제주책방올레' 지도 수록 책방 역시 지난해 33곳에서 2020년판에는 55곳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문학 인프라의 한 축인 출판사와 서점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와 뒤이어 같은 해에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다.

지역출판 진흥 조례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양서출판의 장려, 간행물 유통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정보화 관련 사업,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 행사 참가와 홍보, 지역 문화예술·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지역출판사가 발간한 우수 출판물의 배포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역시 창업, 홍보·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자금·인력 개선과 같은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이들 조례가 지역 출판사나 동네책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글·사진=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만배성 한정식
양만배 조리기능장(Master Chef)이 어머님의 손맛처럼 만배(萬倍)로 정성(精誠)을 다하여 마련한 만배성한정식(萬倍誠韓定食)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습니다.
예약문의 Tel. 712-6800
제주시 아연로 484-9(아라1동)

한국조리기능장
양 만 배
1층 만배성 밥집(10:00 ~ 15:00)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피로하고 지치신분들을 위해 만배성 밥집만의 기력회복에 좋은 신선하고 건강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1층 돌잔치 예약 받습니다 → 1인 15,000원)
식 사 류
가마솥영양밥+불고기 12,000원
가마솥육회비빔밥+불고기 12,000원
가마솥야채비빔밥+불고기 9,000원
궁중해장국효종갱 12,000원
왕갈비곰탕 12,000원
인삼꼬리곰탕 15,000원
도가니탕 12,000원
소머리곰탕 8,000원
차돌된장찌개 8,000원
소불고기 10,000원
도미머리미역갱국 10,000원
일품요리
잔치집돔베고기 20,000원
소고기육회 20,000원
도가니수육 20,000원
소머리수육 20,000원

2층 만배성한정식 코스요리(11:00 ~ 22:00)
상견례, 칠순, 팔순, VIP접대, 각종 연회 및 모임 등을 행사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특A : 1人 70,000
A : 1人 50,000
B : 1人 40,000
C : 1人 30,000
점심특선 한정식
1人 20,000
※ 모든 요리에는 갓지은 즉석가마솥밥이 제공됩니다.